

모든 것을 아시는 두려운 하나님

성경말씀: 시139:1-24

누가24장, 엠마오 마을 제자들, 성경 기록을 이미 알던 제자들, 풀어 줄 때 뜨거움이 일어남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생긴다.

우리 교회: 수많은 강해 설교, 지식이 넘친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지성은 감성으로 이어진다. 반대는 불가능

하나님 희락주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삶의 목표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본을 점검하려고 한다. 바르게 알려 주려 한다. 열어 주려 한다.

구원받은 사람, 반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크리스천 기본 시리즈>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대상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대상, 잘못 설정되면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세상 삶의 모든 것 결정: 사람들, 우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죄,

사람, 믿음, 순종, 영원한 세상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삶, 잘못된 운명, 지옥

시139편, 다윗의 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

우리가 회개 보고할 하나님, 전지하신 분, 내면 외면의 동기, 목적, 행위가 100% 오픈되어 있다.

다윗은 보고 형태로 이런 점을 주님께 시로 고백한다. 존경심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1-6)

1절: 아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를 아신다. 살피시고(search): 깊은 광산에서 광석을 캐 때 하듯,

법정에서 조사할 때 하듯, 사람들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안까지 보신다. 서치라이트

2절: 앉고 일어서는 것, 심지어 생각, 일거수 일투족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담과 이브(창3), 가인과 아벨(창4), 모세, 아간, 다윗(삼하11-12)

3절: 길을 둘러싸신다. 키질하다. 알곡과 쟁데기 구분,

4절: 심지어 모든 말도 다 아신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신다.

행동, 위치, 생각, 말, 길, 동기

5절: '그것들을 에워싸신다.', '내 위에 앉으신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아신다.

6절: 그래서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 겨룰 수 없다. 나는 조그만 먼지와 같다(시103:14). 구조, 먼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7-12)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 도망가려는 사람

7절: 도망가려 해도 불가능, 사람은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디든 가신다.

8절: 천국에도, 지옥에도(암9:1-3), 이 땅에도, 온 우주 안에도 도피할 곳이 없다.

9절: 아침의 날개들, 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빛의 속도로 바다로 날아가도 허사, 아마도 지중해

10절: 순종하는 사람, 거기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여전히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

11절: 도망하는 사람, 새까만 밤이 돼도 하나님이 보신다. 인간은 적외선 카메라로 흐릿하게

12절: 주께는 낮과 밤이 다 같다.

요나 이야기, 니느웨, 다시스, 도망간 결과, 고래 배 속,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부활함

다시 살려서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함

우리를 창조하셨다(13-18)

인간 수태와 출산의 기적을 가장 잘 묘사한 이야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람이 출생하는 것보다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는가? 비교가 안 된다.

수태와 출생 전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

우리 몸을 보라. 80년을 이 안에서 이것과 함께 산다. 머리털, 손톱, 수많은 털 하나

- 13절: 콩팥 소유, reins, 속 중심, 내장,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덮는다: 엮는다. 짠다.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엮는다. 수를 놓는다.
- 15절: 수태 중에, 정자(0.06mm)와 난자(0.5mm)터가 만나 배아를 형성하는 그 묘한 시점에도 주님은 내 실체를 아신다.
- 16절: 그런데 주님은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을 때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심지어 지문도, 홍채도, 얼굴 모습도
- 14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의무,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그것을 다 아나이다”
- 사람 몸을 보라. 이보다 훌륭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 내 안의 두려운 요소들로 인해 나는 다른 존재와 확연히 다릅니다.
- 원숭이: 말, 글, 음악, 노래, 타이핑, 수학, 기술, 핸드폰, 드론, 우주선
- 인간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부해 보면 볼수록 놀랍다.
- 인간의 신비
-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하면 바보 멧덩구리(롬1:21-23)
- 천주교, 불교 등(롬1:28)
- 왜 안 믿는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 뇌가 있냐? 뇌가 보이냐?
- 빛의 스펙트럼, 파장, 자외선, 가시광선(380-780nm), 적외선, 10^{-5} nm(감마선), 10^3 m(라디오 파), 소리의 스펙트럼, 주파수, 가청 주파수, 20-20,000Hz
-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시49:20).
- 17-18절: 이렇게 사람을 설계하려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할까? 유전자, DNA 하나 하나, 그래서 셀 수가 없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 지정의, 그래서 귀중하다.
- 목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신다.
- 공의롭게 심판하신다(19-22)
- 도망칠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 그럼에도 평생을 불순종 가운데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
- 19절: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자들(사람 편에서는 위대한 과학자, 지도자, 종교인, 예술가)
-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신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불 호수, 둘째 사망
- 20절: 이들의 특징, 하나님 조롱, 무시, 통치권 무시, 동성애, 불륜, 공산주의
- 21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큼 이런 죄를 미워해야 한다.
- 근심해야 한다(창6:6). 이 악한 세상을 보며 근심해야 한다.
- 22절: 하나님의 완전한 미움으로
- 주님의 기도(마6:9-10),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 우리의 기도(23-24)
-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나를 살펴보자. 나는 어떤가? 나의 하나님 관은?
- 도망칠 수 없나? 속일 수 있나? 무시할 수 있나? 순종하며 살 수 있나?
- 23절: 나도 내 마음을 알기 어렵다(렘17:9-10).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롬3:4).
-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히4:12-13).
- 24절: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다.
- 롬2:6-8

인체의 신비 내부

인체는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는 약 4백조 개의 염색체와 그 4백조의 수천 배가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가히 경이로운 무한수이다.

참고로 뇌는 인체의 2%밖에 되지 않는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산소와 영양분의 소비는 전체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

인간의 뇌는 1.3kg(1,2~1,5kg)정도 밖에 안 되지만, 약 1조 개의 세포와 1000억 개의 뉴런의 신경망 조직으로 된 무한이 신비한 우주적인 컴퓨터인 것이다. 두렵고도 놀랍다

혈관의 총 길이는 120,000km나 된다고 한다. 혈관은 정맥, 동맥과 모세혈관으로 구성된다.

정맥과 동맥의 길이를 합하면 100km정도밖에 안 되지만,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을 모두 합하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것이다.

왕복거리가 대략 860km인 경부고속도로를 약 140번 왕복하는 것과 같고, 둘레가 약 40,000km인 지구를 3바퀴를 도는 거리와 같은 셈이다.

자동차 시속이 100km라 하더라도 50일이나 걸리게 된다. 참고로 혈액의 시속은 대략 216km 정도.

이를 위해 심장은 평생 27억 번 이상을 뛰게 되는데, 이런 점을 보더라도 심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입에서 식도를 거쳐 항문까지는 대략 0.7m밖에 안 되는데 소장은 6m, 대장은 1.5m 나 된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인체의 신비 외부

머리털 대략 10만개 정도 되고 하루 평균 수백 개의 머리털이 빠지고 다시 난다. 참고로 수염은 3만개, 잔털은 30만개 정도라고 한다. 만약 머리카락을 평생 기르게 되면 얼마만큼 될까? 머리카락은 하루에 평균 0.435356밀리미터를 자란다. 만약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머리카락 한 올이 자랄 수 있는 최대 길이는 11m에 달한다.

눈 한번 깜빡 하는 시간을 '순간(瞬間)' 또는 '찰나'라고 하는데,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0.025초가 된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초에 한번 눈을 깜빡인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에 1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인다. 이때 눈 근육은 약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데, 다리가 이 정도의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80킬로미터는 걸어야 한다. 눈이 쉽게 피로한 이유가 쉽게 짐작된다.

두개의 콧구멍은 3~4시간 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다. 즉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쉰다.

입은 평생 동안 약 50t의 음식물과 50,000ℓ의 물을 받아들인다. 재채기를 하게 되면, 시속 160km의 속도로 퍼지는데 뉴욕 양키스의 강속구 투수 랜디 존슨의 속구와 비슷한 속도다.

맛을 느끼는 혀에는 대략 9,000개의 미각세포가 있다.

우리 몸의 외형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피부이다. 피부의 총면적은 15,000cm²이고, 분화구 같은 땀구멍은 대략 500만개에 달한다.

온전한 손톱 하나가 성장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고, 하루에 약 0.1mm 정도 자란다. 만약 손톱을 깎지 않고 평생 기른다면 그 길이는 대략 3m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인간은 평생 몇 번 울고 웃을까? 조사에 따르면, 웃는 횟수는 540,000번이고 우는 횟수는 3,000번으로 우는 횟수보다는 웃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 즉, 하루에 21번 정도 웃는다.